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섭점령을 위한 조선인민군 특수작전 부대들의 대상물 타격경기를 지도하시였다



2 번 에서 계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인민군대앞에 나선 기본혁명과업은 훈련을 잘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싸움준비를 하루빨리 완성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당이 제시한 훈련혁명 5대방침을 중심고리로 틀어쥐고 전쟁환경에 접근한 실용적실동훈련을 많이 조직하여 모든 일군들과 군인들을 그 어떤 전투 임무도 자립적으로 원만히 수행할수 있는 일당백의 펄펄 나는 싸움군, 조국통일대전의 맹장들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인민군대에서는 그 어느 나라 군대도 가질수 없는 우리 혁명무력의 고유한 사상정신적특질을 굳건히 고수하여야 하며 오직 총대로 적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리고 서울을 단숨에 타고갔으며 남반부를 평정할 생각을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가 도달하여야 할 군건설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으로 장병들을 적극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진행된 섭점령을 위한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들의 대상물 타격 경기는 주체조선의 무적막강한 국력앞에 분별을 잃고 히스테리적인 전쟁광기를 부러대는 미제와 그 추종들을 일격에 형체도 없이 쓸어버리고 정의의 보복작전으로 적들의 소굴을 생존불가능하게 초토화해버릴 인민군장병들의 원무격멸의 기상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인민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꽃바구니 진정

뜻깊은 선군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만수대년덕으로는 선군혁명의 고귀한 력사와 전통을 창조하시고 불변불류의 명도로 민족안타의 번영을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주신 업적위인들에 대한 한없는 경모의 정을 담은 군중들의 꽃바구니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등의 글씨가 적혀져있다.

참가자들은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며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쳐주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시대를 열어주시는 일대위인들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겨보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할 드리고 있다.

김일성종합대학, 인민무력성, 인민보안성, 민주대학장학생들 비롯한 평양시내 여러곳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들에도 다함없는 충정의 대하가 있었다.

각지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 농작사생들도 자기 고향에 놓여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열린, 강국열린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레도 일심단결하여 세기를 이어온 만민대결전을 총력전하고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의 최우승리를 앞당겨나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당과 국가의 책임 일군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참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명도를 시작하신 57돐을 맞아 25일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과 우당위원장,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참관하였다.

참관자들은 먼저 전승일명령장소에서 김정일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러 추추지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선군혁명승리관을 찾은 그들은 주체의 선군태양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에 영생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러 추추지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주제 49(1960)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 군위 서울류경수계 105명군 승리와 영광의 현안리를 드리는 격정속에 들어버려있다.

그들은 인민군대를 무적원수의 혁명무력으로 키우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군사강국, 당당한 핵보유국으로 빛내여주시기 위한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명도업적을 보여주는 사적자료들과 전시물품을 경건한 마음을 안고 돌아보았다.

전체 참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선군혁명업적을 깊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만리마태고조선에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시의 본분을 다해나갈 결의를 다졌다.

【조선중앙통신】

새로운 주체 100년대를 자랑찬 위훈으로 펼쳐가는 영웅 청년대군

지난 5년간 청년들속에서 로력영웅, 김일성청년영예상, 김정일청년영예상 수상자 1,500여명 배출,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12만여명 진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을 피뎠는 심장마다 새긴 청년들대원들은 지난해 70일전투기간 이전보다 4배이상에 달하는 신화적인 전진속도, 만리마속도로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를 완공하여 조 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선물로 드리는 기적적승리를 이룩하였다.

《백두의 깃바람에 돛을 달고 조선혁명의 침포파라 폭풍쳐 내달리자!》라는 우정의 구호를 높이 부르며 당중앙과 운명의 피를 잇고 죽어도 변치 않을 혁명적대원들 당의 뜻을 결사관철하여온 청년들대원들속에서 50여명의 로력영웅들과 200여명의 김정일청년영예상, 김일성청년영예상 수상자들이 배출되었다.

백두대지에서 창조된 영웅청년정신이 온 나라에 힘있게 내뿜는 속에 청년들의 사상정신적품모가 최고의 경지에서 말뚝되어 우리의 시대의 청년영웅들, 청년핵심들이 수없이 나왔다.

부러기비에 의한 뜻밖의 위험한 정황속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를 목숨바쳐 보위한 인공군 인공중학교(당시) 청년동맹원이었던 한현경학생의 고결한 정신세계는 수령경사용위를 삼과 투쟁의 참리로 세득한 우리 청년들의 숭고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당의 부름따라 만리마속도창조전진, 자력갱생전진군의 앞장에 선 수많은 청년들이 대중적영웅주의의 운봉, 대바약, 대혁명의 사회주의경쟁운동에서 끊임없는 새기적, 새 기록을 창조하여 김일성청년영예상, 김일성청년영예상을 수여받았다.

이들속에는 평평기리건설에서 많은 대량의 골조공사를 70여일만에 걸치고 청년운동사적관, 류경원, 금강제육인공합성로공장 등 60여개의 대상을 시대의 기념비적전투로 일떠세우는에 공헌한 속도전청년들 적대원들과 북부철길개건보수진부에서 청춘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친 혁신자들도 있었다.

당의 호소를 받들고 북부해방구 전투부대로 달려가 부기적자를 창조한 7만여명의 청년들속에서도 당중앙의 결심이라면 불꽃물속에도 뛰어들어 기여이 실현하고자하는 영웅청년정신이 높이 발휘되어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의 존엄으로 빛나는 청년영예상수상자들이 많이 나왔다.

전국적으로 지난 5년간 12만여명의 청년들이 땅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초소에 인생의 좌표를 정하고 값있는 청춘의 자욕을 새겨가고있다.

당의 부름에 피뎠는 청춘의 심장으로 화답하며 산으로, 바다로 달려나간 전세대 청년들의 혁명정신,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복잡한 환경에서 새 삶의 길을 찾고 수도 평양을 멀리 떠나 백두산원리법의 주인으로, 최전선심야참호의 교육사로 값있는 인생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의 열풍이 새차에 타던 저 지난해 김정은청년영예상수상자, 사리원방직공장에서 6년분 계획원수자들이 배출되었으며 2012년 이전에 비해 인민경제계획완수사태율은 1.4배, 선군청년해방전쟁위대한 1.6배로 늘어났다.

지난해 청년들이 지역자강으로 수백개의 《청년호》기차, 고기배 등을 마련했음을 비롯하여 지난 5년간 청년명칭이 새겨진 선박, 기차들은 2만여대에 달한다.

강원도청년의 창조자들과 결연의 고결한 영웅소대원들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석탄공업부문의 20여개 청년들격대들이 올해 5월까지 년간, 삼만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한것을 비롯하여 우리 청년들은 만리마속도창조전진을 향한 진진충돌적에서 선봉대, 돌격대로서의 영예를 남김없이 펼쳐가고있다.

애국으로 불리는 수백만 청년들이 기적과 위훈의 창조자, 시대정신과 분화, 미풍의 창조자가 되어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선도해가고있는 이 거창한 현실은 우리 당의 청년청년정치가 결집하는 청년강국의 앞길에 얼마나 휘황찬란한가를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

인생의 귀중한 청춘시절을 조국의 무장년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아낌없이 바치며 위대한 조선로동당을 따라 끝으로 나아가는것은 우리 청년들의 삶의 좌표이며 피뎠는 심장들의 명이다.

슬기롭고 영웅한 우리의 미려운 청년들은 앞으로 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당중앙경사위원회의 원군만마가 되어 백두산청년대장국의 불패의 위용을 더 높이 떨치며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수해나갈것이다.

【조선중앙통신】

백두산청년대장국의 무궁무진한 힘을 만방에 떨치며 총진군대오의 앞장에 선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우리 청년들이 조선로동당의 청년동맹정립 9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력사상 처음으로 청년청년시절 혁명의 전담적선으로, 국사중의 국사로 내세우신 백두산청년대원들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속에 혁명투쟁과 사회발전의 당당한 주력, 선봉대의 영예를 펼쳐온 우리 청년청년들의 위훈은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전군에게 더욱 값높이 आरो세져지고있다.

이것은 조선청년운동의 자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며 백만자부, 천만자부의 힘을 들어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부대로 역세게 키워가는 우리 당의 청년청년시절의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세대를 이어오며 성스러운 혁명의 길에서 당과 수령, 조국을 전폭히 옹호보위하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떠밀어온 청년들의 영웅적투쟁과 위훈은 우리 당의 력사와 주체의 청년강국건설사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청년청년시절, 청년시절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명도에 의하여 주체혁명의 새시대에 우리 청년들의 지위와 역할은 비상히 높아지고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운동의